



KIA 마운드 '설상가상'

팀 타선 부재로 힘 빠지는데 '안방마님' 김상훈 마저 부상 배터리 호흡 '빠격' 큰 불안



“안돼도 이렇게 안돼나오”

극심한 타격부진에도 마운드의 호투를 보며 초반 슬럼프만 극복하면 된다는 위안을 삼았던 KIA가 최근 안방마님 김상훈의 부상 악재까지 겹쳐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

믿을만한 중심타선 부재 등 '물방망이' KIA는 그나마 선발진들의 호투를 위안으로 삼았으나 안방마님 김상훈의 부상으로 마운드마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어떻게든 하위를 벗어나려는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KIA는 타선 불발로 팀이 끝없이 추락하는 중에도 꿋꿋이 마운드를 지켜주는 선발투수들을 보며 하위 탈출의 기대를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마운드마저 흔들리고 있다.

이처럼 부진한 타격에도 묵묵히 제 역할을 해 왔던 마운드가 무너진데는 안방마님 김상훈의 결장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상훈은 SK 경기에서 홈으로 쇄도하다 왼쪽 발목 인대 부상을 입어 당분간 경기 출전이 어렵다. 3주간 반갑스를 하면서 재활을 해야 하는 만큼 최악의 경우 복귀까지 2개월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김상훈이 라인업에서 빠진 10일 이후, 3.31의 팀 평균자책점이 15일 4.36까지 상승했다.

눈에 보이는 수치뿐만 아니라 투수들이 느끼는 안정감과 라인업이 믿고 의지하는 안방마님의 부재는 팀 전체적인 플레이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KIA는 이번 주 하위권인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와 맞붙기 때문에 1승의 가치는 천금과도 같다. 6연전의 분위기를 좌우할 15일 경기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앞선 3경기에서 3.5의 평균 자책점으로 괜찮은 활약을 했던 리마는 15일 LG 타선의 실재없는 공력에 4회에만 7실점 하며 더 나은 됐다. 9회 2사위후 5점을 뿜어내는 역전극을 펼치면서도 연패를 끊지 못한

KIA입장에서는 4회 7실점은 뼈아픈 점수였다.

리마가 강판 당하면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포수 차일목도 송상노로 교체됐다. 안방마님 김상훈의 빈자리가 크게 보인 경기였다.

김상훈은 올 시즌을 앞두고 포수 조련사 조범현 감독으로부터 혹독한 과의수업을 받았다. 전지훈련지에서 힘든 훈련을 소화해 낸 것을 물론, 시범경기 동안 조범현 감독의 열자리에서 메모를 하고 있는 김상훈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혹독한 겨울의 대가는 결과로 드러났다. 눈에 띄게 안정된 리드는 한국무대에 첫선을 보인 서재응과 리마의 연착륙에 큰 도움이 됐다. 타선의 침체 속에서도 내야를 진두지휘하며 한 경기에서 4점 이상의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타율도 0.333을 기록하며 공·수 모두 한층 성숙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김상훈이 빠진 뒤 치른 첫 경기 상대팀은 하필 방망이에 한창 물이 오른 롯데 자이언츠였다.

잡자던 KIA 타선이 31개의 안타를 때리며 희생의 기미를 보였지만 마운드는 3경기에서 19점을 내주면서 3연패했다. 롯데와의 11일 첫 경기에서 에이스 윤석민은 5와 3분의 2이닝 동안 7실점 하며 무너졌다. 경기 후 조범현 감독은 “배터리의 호흡이 맞지 않았다. 김상훈의 공백이 크다”고 언급했다.

김상훈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차일목이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다. 경기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미트질에 부족해 위기 상황에서 투수들이 심하게 흔들린다.

또 한명의 후보인 송상은 시범경기에서 연이은 실수로 합격점을 받지 못해 시즌을 2군에서 시작할 정도로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갈길 바쁜 KIA가 안방마님 김상훈의 공백을 어떻게 메우느냐에 따라 팔찌탈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봉달이' 질주 시작됐다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38·삼성전자·사진)가 20일 베이징 프레올림픽에 출전, 네 달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을 향해 질주를 시작했다.

이봉주는 오인환 삼성전자 육상단 감독, 여자마라톤 이은정(27)과 함께 18일 출국, 이틀간 현지 적응을 마친 뒤 20일 프레올림픽 형식의 '굿럭 베이징 로드 레이스'에 참가한다.

20일 베이징 프레올림픽 출전

기록보다 현지 코스 답사 주력

지난달 2008 서울국제마라톤대회에서 경쟁 선수들의 오버 페이스에 밀려 고전했으나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2시간12분27초로 8위에 입상한 이봉주는 베이징올림픽 실제 코스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회에서 현장 분위기를 익히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인환 감독은 16일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이번에는 기록과 순위보다 현지 코스를 답사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조경하듯 레이스를 치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봉주는 지난해 8월 실제 올림픽 상황을 가정하고 베이징 거리를 뛰며 탁한 공기와 무더운 날씨를 경험했지만 당시에는 도로 통제도 안 됐고 코스도 올림픽 코스와 달라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다.

코스 답사를 마친 뒤 이봉주는 국내로 돌아와 본격적인 체력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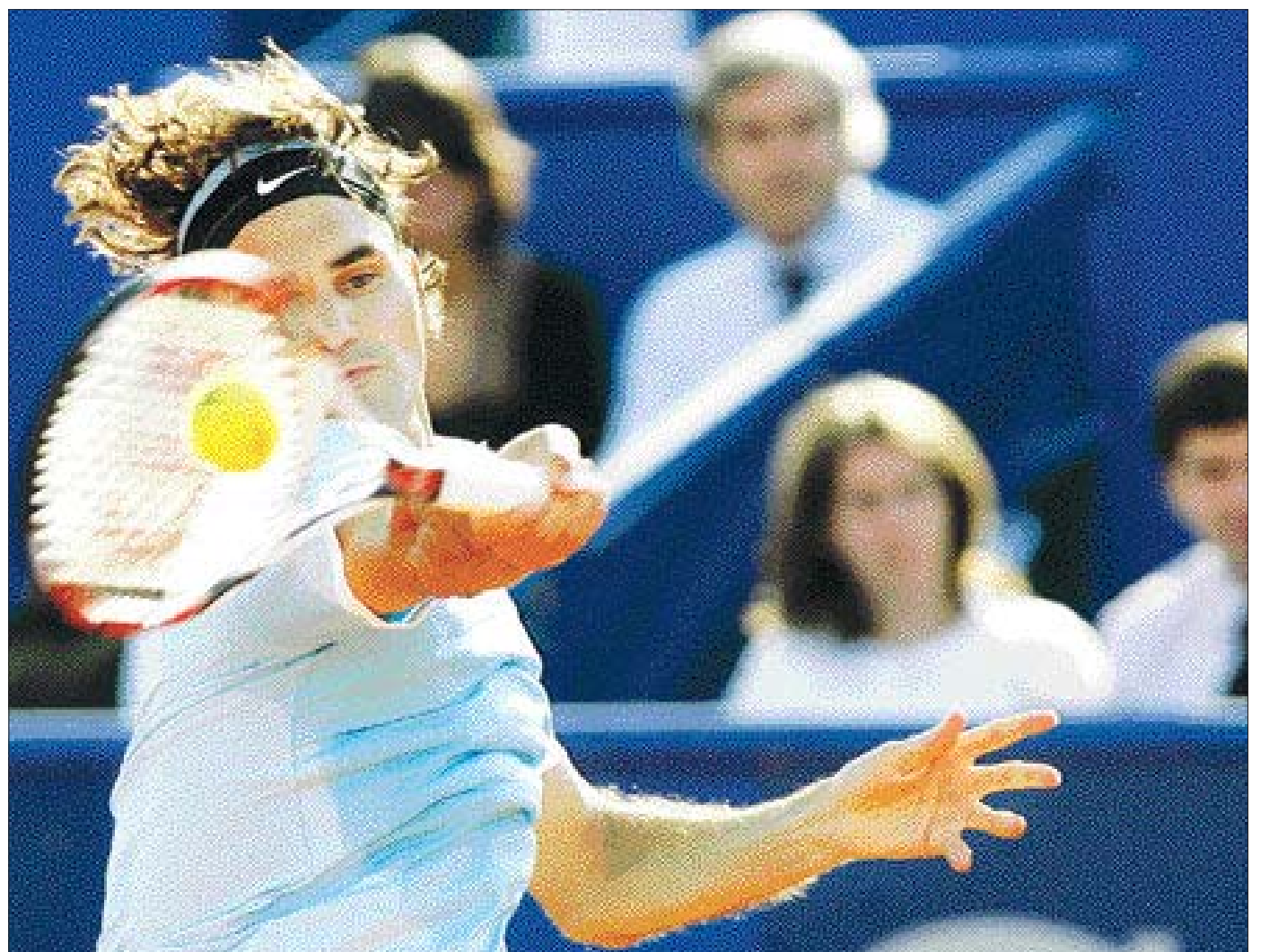
오 감독은 “이달 28일부터 대진 계곡산에서 3주간 웨이트 트레이닝과 트레 훈련, 체력 훈련 등을 집중적으로 치를 계획이다. 계곡산 코스는 한 바퀴가 14km 정도 되는데 굴곡이 심해 산악코스 훈련을 치르기에 안성 맞춤”이라고 소개했다.

베이징의 무더운 날씨를 극복하고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기초 체력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3주간 지옥 훈련을 치르는 셈.

오 감독은 여러 악조건 속에 치러지는 이번 올림픽 마라톤에서 2시간 9~10분대면 메달권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옥 훈련을 마치면 이봉주는 스피드를 강화해 6월15일과 7월20일 일본 후카이도 현에서 열리는 두 차례 하프 마라톤대회에서 최종 예열을 마칠 계획이다.

한편 '굿럭 베이징 로드 레이스'에는 지난달 21일 중국 톈진으로 고지 훈련을 떠났던 경보 쌍두마차 박철성과 김현섭도 참가, 세계 건각들과 자웅을 겨룰 예정이다.



페더러 파워 '리턴 샷'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16일(이하 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에스토릴 오픈 테니스대회 1라운드에서 리턴 샷을 하고 있다. 페더러는 벨기에의 올리버 로커스를 2-1(4-6 6-3 6-2)로 제압하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스위스의 로저 페더러가 16일(이하 한국시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에스토릴 오픈 테니스대회 1라운드에서 리턴 샷을 하고 있다. 페더러는 벨기에의 올리버 로커스를 2-1(4-6 6-3 6-2)로 제압하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프로' 대신 '아마'로 제6구단 추진

중학교 축구선수 심장검사 의무화

女프로배구 "지자체팀 대상"

여자프로배구가 프로 신생팀 창설이 벽에 부딪히자 난데없이 아마추어 팀을 제6구단으로 끼워넣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달 12일 각 구단에 보낸 '2008-2009 V-리그 경기일정(안) 송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여자 제6구단을 지방자치단체나 유지회망 지역을 통해 창설할 경우 6개 팀 일정을 제시했다.'

프로 5개 팀 체제인 여자배구는 2005년 리그 창설 이래 6구단 신설을 추진해왔다. 공문에 나온 '6구단 유지회망 지역 배정'이라는 표현은 프로팀 창설을 염두에 둔 것이지만 '6구단 지자체 배정'은 기존 지자체 소속 아마추어팀(수원시청, 양산시청 등)을 전제로 한 표현이라는 게 KOVO 설명이다.

이번 공문은 24일 KOVO 이사회를 앞두고 각 구단의 의견을 취합하려고 보낸 것으로 '지자체 6구단 배정안'이 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혁규 총재의 취임 공약인 프로 신생팀 창설이 아니라 지자체 소속 아마추어팀 참가를 전제로 한 경기일정을 짰 데 대해 KOVO 사무국은 "프로팀 창단이 목표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면 아마팀을 포함시켜

대한축구협 "내년부터"

사라도 6구단 체제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대다수 구단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관노식 사무국장은 "상설 지자체 팀인 수원시청과 양산시청에는 우리 뜻을 비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말했다. 일부 구단과 선수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모 구단 부단장은 "KOVO가 프로팀을 못 만들 것 같으니까 전국체전 우승팀을 끌어들이자는 주장을 내놓았다"며 "경기 수를 2006-2007 시즌 24경기에서 2007-2008 시즌에 28경기(7라운드)로 늘리는 바람에 각 팀 주축 선수들이 무릎과 발목 부상에 시달리고 있는데 프로팀도 아닌 시청팀을 끼워 넣어 35경기로 늘린다는 건 말도 안된다. 우리는 결사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윈도 회원권거래 전문기업
룩펠러 회원권
제1회 '룩펠러 회원권' 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평가상 및 모이레프스트라운으로 확장사업 하였습니다.
성주에 위치한 대한민국 최고의 거처소가 되었습니다.
정답 전화 (062)351-0095

대한축구협회가 2009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 등록하는 선수들에게 심장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축구협회는 16일 "국내의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 심장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국제축구연맹(FIFA) 207개 가맹국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FIFA가 2006년 독일월드컵 이후 모든 대회에 선수들의 의무기록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통해 '돌연사 방지를 위한 유소년 축구선수 심장검사 실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축구협회는 올해 중학교에 입학해 등록을 마친 선수 2천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심장검사를 받게 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중학교에 입학해 처음으로 축구협회에 등록하는 선수들은 반드시 심장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한다.

축구협회는 심장검사 편의를 위해 18일 오후 2시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등록선수 심장검사 협약을 맺고 전국 64개 병원을 지정병원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금 13개 목표"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한국대표 선수단 발대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참가하는 대표 선수들이 상위 입상을 위한 굳은 결의를 다졌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16일 오후 3시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 올림픽파크에서 장항숙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대표 선수단 3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패럴림픽 톱팀(Top Team)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2004년 아테네 패럴림픽 육상 2관왕 홍석만과 2005년 이탈리아 아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 1위에 올랐던 여자 양궁 간판 이화숙 등이 선수 대표로 나서 선전을 다짐했다.

베이징 패럴림픽 메달 사냥 선봉에 설 최정애 선수들이 톱팀은 육상과 양궁, 탁구, 보치아, 사격, 역도 등 7개 종목의 선수 24



16일 오후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내 벨로드롬에서 열린 2008 베이징 장애인올림픽 톱팀(Top Team) 발대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선수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명으로 구성됐고 한국은 금메달 13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14위에 오른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항숙 회장은 "1988년 서울 장애인올림픽 20주년에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종합 14위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인촌 문화부 장관도 격려사에서 "우리

선수들이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떨치고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뒤 "선수들이 훈련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인촌 장관은 양궁 선수단의 시공에 이어 직접 활 시위를 당겨 활사 다섯 발을 쏘는 시연을 했다. /연합뉴스